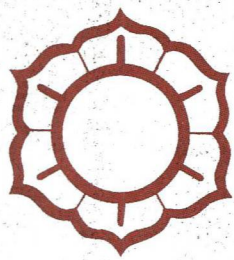


불교총지중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음마니반에
흠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
교화를 표방한 재가종단입니다.



총지중보

2001년
6월 1일
금요일
제25호

公衆의 일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사사로
운 일에 이용하지 말며, 중생을 이롭게 하
기 위해 덕을 베풀고 자기의 이익은 취하지
말라.
(宗祖法說集中)

발행인 : 해암 편집주간 : 원송 편집인 : 황의수 인쇄인 : 김준배

www.chongji.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구독신청 : (02)552-1081

30년 숙원 중앙신정회 정식 출범

총지중 교도들의 의지 모아 교세발전과 포교활동 적극 참여



좌로부터 심인장 부회장, 정법화 부회장, 밀성관 회장, 최윤정 감사, 김수연 부회장, 이인성 감사, 김동운 총무.

지난 18일 대전 만보사(주교 법공)에서 중앙 신정회가 정식 출범하였다. 이날 해암총리원장과 각 교구장 및 총무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중앙 신정회 출범을 축하하였다.

해암 총리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그동안 수 년을 두고 보살님들께서 염원하시던 중앙회가, 오늘로서 막이 오르다고 생각하나 감회 깊고 기대 또한 대단히 큼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는 이 조직이 더욱 활성화가 되어서 총지중의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불교의 근본이 되는 밀교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으로 노력하기 당부하였으며 또한 열심히 정진하여 우리 총지중이 새로운 불을 당기고, 청종 당시의 불심을 일으켜서 이 나라에 밀업국토가 형성되는, 굳건한 기틀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중앙신정회 회창에는 밀성관(정각사) 부산 경남교구 신정회장이 총 득표 34표를 획득하여 21표를 획득한 서울 경인교구 신정회장 정법화 보살을 제치고 제 1대 중앙신정회장에 선출되었다.

부회장에는 정법화(관성사) 서울 경인교구 신정회장, 김수연(수인사) 대구 경북 교구 신정회장, 심인장(만보사) 충청 전라교구 신정회장 3인이 선출되었으며, 감사에는 이인성(총지사) 각자와 최윤정(국광사) 보살과 총무에 김동운(관성사) 각자님이 각각 선출되었다.

밀성관 중앙신정회장은 인사말에서 "교도들의 협력과 화합 단결을 최우선으로 종단발전과 교세확장에 중앙신정

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노인 복지시설 확장에 특히 많은 관심을 두어 종단발전의 밑거름이었던 노보살님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각 교구에 한국 이상으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이날 중앙신정회 회창 심의와 대의원선출은 차기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결정하였다.

"불교에서의 효사상"의 주제로 제 22차 한. 일 불교문화교류대회 열려

한일불교교류협의회 주최 제 22차 한. 일 불교문화교류대회가 지난 5월14일부터 16일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강남 봉은사에서 열렸다.

해암 총리원장, 의강 중앙종회의회장 원송 총무부장 및 정사 1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승님은 대회사에서 "세계대전 이후 서구문명의 유입은 사회의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요긴한 근본인 윤리와 도덕, 사회질서가 혼란해져 윤리와 도덕의 근본인 효의 정신이 사라졌다"며 부처님께서는 부모에 대한 일체의 선행과 일체공덕의 근본이 효로 비롯되며 또한 효가 계의 의롭다. 부모님께 공양함과 부처님께 예경한 공덕이 똑 같으며 부처님이 모든 것은 성취한 것도

다생겁을 두고 효도한 인연공덕의 예를 들며 효가 인간적 행위의 표징이며 만 가지 선행의 원천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한 일 양국 불교 지도자들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양국 불교도는 현대 문명의 혼미와 세계불안을 석존의 지혜와 지비의 청신으로 극복하기 위해 진지한 토의를 하였다"면서 △한일 양국간 역사적 인식에 상이점이 문제점으로 이를 깊이 우려하고 문제점

극복에 공동 노력 △가죽윤리 확립하여 불국토 실현에 기여 △세계와 인류의 평화 기원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성공적인 개최 기원등을 결의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해암 총리원장과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일본측 고문인 다카시류텐(高橋隆天) 平間寺 實首, 상임이사 노자와 平間寺 執事長, 상임이사 이찌가와(市川智康) 妙安寺 住職과 만나 한국의 전통밀교종단인 총지중과 일본의 밀교종단의 교류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다카시류텐(高橋隆天) 平間寺 實首는 "앞으로 일본의 밀교종단은 한국보다 역사적으로는 늦지만 한국과는 달리 밀교역사의 단절이 없어서 밀교의 자료와 의례 의식등 다양한 양식이 보존되어 있어 교류를 통한 밀교의 역사를 이어가고" 하였다.

황령산의 금강법계궁 자석사 헌공불사 고해중생들의 안식처로 자리 매김



본존제막식을 하고 있는 특정 종령, 해암 총리원장, 송하 감사원장, 의강 종회부장, 정정심 부산 경남교구장, 법상인 자석사 주교, 자석사 신도회장.

지난 23일 2천여의 공사로 위용을 자랑한 부산 자석사 금강법계궁이 완공되어 헌공불사를 가졌다.

종령님을 위시한 전국 스승님 그리고 교도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헌공불사에서 종령님은 법어를 통해 "어떤 것이 신심이며, 어떤 것이 수행이고, 신심은 근본을 믿는 것이니, 즐거이 진여의 법을 생각하는 것이요."

"부처님에게 무량한 공덕이 있음을 믿음이니, 항상 친근해서 공양하고 공경하기를 생각하며, 선근을 일으켜서 일체지 구하기를 원하는 것이요."

"법에 큰 이익이 있는 것을 믿음이니, 항상 모든 바라밀 수행하기를 생각하는 것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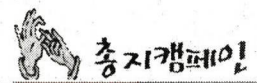
"스승이 능히 올바르게 수행하여 자리 이타함을 믿는 것이니, 항상 즐거이 모든 보살중을 친근해서 여실한 행을 배

우기를 구하는 것이다."

"무릇 진여를 믿고, 불(佛)을 믿고, 법을 믿고, 승을 믿는 것이 발원의 근본이니, 마땅히 이를 수행하여 실천하는 것이 진언행자의 도리이다."라는 법어를 내렸다.

자석사는 총기 5년 일념화 전수님을 초대주교로 모시고 유가서원당을 개설하여 총기 7년 자석사로 개칭하고 총기 10년 현 감사원장인 송하정사님을 2대 주교로 증축 헌공불사를 하였으며 총기 15년 현 주교인 법상인 전수님이 3대 주교를 맡고 있다. 총기 28년 621평에 단층건물로 자석사 금강법계궁이 공사 2년여만에 그 위용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종령님은 자석사 건립을 책임있게 시공한 덕양건설 이상두 사장에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물을 아끼시다

물은 생명유지를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물질입니다. 인체의 약 70%는 물이며 이 중에서 1~3%만 모자라도 심한 갈증을 느끼고, 5%정도만 부족해도 혼수상태에 빠집니다. 또 12%가 모자르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물이 없다면 인간은 약 일주일밖에 살 수 없습니다.

생존과 같은 극단적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물이 조금이라도 모자르면 세면, 세탁, 취사 등 일상생활이 고달파집니다. 70년대 어머니, 할머니들이 물동이를 들고 줄지어 서서 급수차를 기다리던 때를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 일부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뉴스나 신문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논과 밭은 이미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식수조차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급수차가 동원되는 모습이 tv에서도 방송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현실은 우리들의 자업자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은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들의 물을 쓰는 습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국민의 물 소비량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은 395리터입니다. 이는 프랑스보다도 많은 것이며 독일에 비하면 3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국민소득을 감안한 물 소비수준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더욱 확실합니다. 국민 소득 1천 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물 사용량은 41.6리터로 영국 22.2리터, 호주 23.1리터, 미국 24.6리터 등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습니다. 10.9리터인 프랑스와 4.8리터인 독일에 비교했을 때는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이렇게 살펴볼 때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물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물 소비 습관을 바꿔 낭비하는 물 가운데 10%만 아껴도 연간 절약할 수 있는 수도물은 약 4억 1천만 톤이며, 이는 영월 댐 저수량인 2억 톤보다도 훨씬 많은 양입니다. 또한 이를 수도물 생산비용으로 환산해 보면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은 연간 2,900억원 이상입니다.

갈라진 논밭을 보며 애태우는 농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릇마다 물을 받아놓고 일회용 인스턴트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내 이웃의 고통스러움을 생각하며 지금 즉시 우리 집에서는 물을 너무 과하게 쓰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보고 즉시 그렇다면 나무부터 우선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껴 쓰는 것이 바로 중생의 아픔을 헤아리는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불제자의 도리가 아닐까.

하반기 49일 불공

하반기 49일 불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의 스승님과 교도들은 부국강병과 조국 평화통일을 위한 진호국가 불사와 조상의 은혜에 보은하는 추선불사에 동참하여 공덕 쌓으시길 바랍니다.

일 시 : 5월 28일~7월 15일

장 소 : 전국 각 서원당

서원사항 : 일반서원 사항

본산 부지 선정 원만

양계 만다라 조성 원만

불교 총지중

중 령 록 정
총리원장 혜 암

한일불교교류협의회

사설

「중앙신정회 창립」에 바란다

지난 5월 18일에는 종단 역사의 한 장을 새롭게 장식할 수 있는 일대불사가 있었다. 바로 종단교도들이 수년간 고대해왔던 중앙신정회의 창립이 그것이다. 늦은감이 있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자위(自慰)와 함께 그동안 못해왔던 활동을 재개하고 더욱 종단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앙신정회의 결성은 시의적절한 것이라 하겠다. 반갑기 그지 없고, 환영 대환영이 우리의 입장이다. 중앙신정회의 창립은 종단발전을 위해서 승속의 구분없이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대처해나간다는 의미에서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승가(僧伽)란 범어 '상가'의 음역으로 '화(和)·중(衆)'을 의미한다. 곧 승가는 불법(佛法)을 믿고 불도(佛道)를 행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하는 것으로 '화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승가의 구성은 보통 광의(廣義)로서 출가자와 재가자를 포함하는 칠중(七衆)으로 이루어진다. 승가는 단순히 사중(四衆), 칠중(七衆) 등 '무리집단'이라는 의미만을 뜻하고 있지는 않는다. 그속에는 '화합'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 그것이 강조되고 있다. 무엇을 위한 화합이나. 그것은 '발전'을 위해 나아가는 화합이다. 그런 점에서 승가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교도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막중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승불교에서 승가의 중심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재가수행자, 즉 '교도'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승가는 스승님과 사원,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교도들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교도들이 종단발전을 위하여 중앙회를 결성한 이상 승단과 교도 대중들을 위해 적극적인 책임완수와 의무수행이 있기를 바란다. 종단의 발전은 승승과 종사자들만이 꾸려나갈 일이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승승, 종무원 보다 교도들의 적극적인 실행 활동과 깊은 신심이 더욱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교도들의 역할이란, 종단과 사원의 발전은 물론이고, 교도 상호간 신뢰와 실행생활이 더 한층 깊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신정회 결성은 종단발전을 위해서, 또한 교도 보살님 스스로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자리요,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출발인 만큼 좋은 열매가 있기를 바란다. 또한 중앙신정회의 활동이 종단발전에 중추적인 역할로 자람매김 되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건전한 견제와 상호협조를 통해 새로운 승가의 상을 정립해나가기를 희망한다.

해암 통리원장 자석사 헌공사

불심깊은 항구의 도시 부산 황령산 기슭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장엄한 법계 도량을 부처님 전에 헌공드리옵나.

해암의 전당(殿堂)은 오로지 부처님의 가지력과 원력 깊은 스승님들과 보살님들의 무진사원과 정진의 공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당은 자재원만하신 법신불의 도량으로, 금강 법계공의 도량으로, 모든 보살의 깨달음의 전당으로, 그리고 일체유정들의 복덕의 원천(源泉)으로, 또한 교해중생들의 안식처로, 직업 중생의 수도 해탈처로 자리매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주에 상주하여 영원불변하신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시여!

오늘, 승단의 스승님과 교도대중이 다함께 불사를 올리고 서원하오니, 이 자석사가 미래제(未來際)가 다 하도록 불법의 인연처가 되게 하옵고, 우비고비(憂悲苦惱)의 수렁에 허덕이는 중생들에게는 무진등(無盡燈)이 되고, 서원성취의 마니보궁(摩尼寶宮)이 되며, 나아가 국가와 민족의 발전이 되어 세계평화를 이루는 불국토가 되게 하옵소서.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가득하기를 시원하오며, 간소한 헌공사로서 불전에 헌공하오니 영접토록 부처님의 가지신력과 자비지혜가 함께 하옵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중앙총의회 및 승단총회

중앙총의회 의원 17명 선출되어...



삼일사 의장

만보사 법공

국광사 법성

제석사 우승

수계사 해산

관정사 해정

화유사 법정

실보사 최상관

홍국사 밀공정

개천사 지광

밀행사 지공

정각사 경원

단유사 일신행

자석사 법상인

지인사 연등원

법천사 시정

실지사 선도원

불교총지중

www.chongji.or.kr

02-552-1080

고 심인행 전수님 1주기 추도법회 열려



지난 20일 고 심인행 전수님 1주기 추도법회가 수유리 실보사에서 해암통리원장 및 원승총무부장등 교도 100여명이 모여 추도법회가 열렸다.

전수님의 살아생전 교회의 열정과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듯 했다. 이날 교인을 따른 많은 교도들은 교인의 살아생전의 모습을 기리며 추념추복의 뜻을 가슴에 새겼다.



해암 통리원장을 비롯한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한·일불교지도자들이 5월 16일 청와대 김대중 대통령을 예방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종교법인 사무국장 연수회 가져

본 종단 통리원 사무국장 인선정사 및 재단 공이영 교무가 참석한 가운데 남한강 연수원에서 문화관광부 주최 2001년 종교법인 사무국장 연수회에 참석하였다.

문화관광부 중무실장의 입소식으로 시작되어 세무행정중심으로 법령해설 및 질의응답에 정대진 세무사의 강의와 분임토의를 하였으며, 둘째날 이화여대 최준식교수의 한국종교문화의 이해 특강과 분임토의의 사례발표 및 토의소식으로 연수일정을 마쳤다.

공이영 교무는 "이번 연수에서 법륜운영의 일반사항 및 사무양식,

종교관련 세법 부과세 및 부당산정의 등기, 종교기관 세금관리에 대한 연수에서 총지중유지재단운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타종교 재단법인실무자와 유대를 교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이번 연수를 평가하며 앞으로 재단행정 실무자로서 행정이나 세무에 대한 다양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날 연수회에 총지중을 포함한 불교계 46명과 민족종교 20명 천주교 60명 개신교 60명이 참석하였다.

생활속의 밀교

"미운 놈에게 떡 하나를 더 주자"

우리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이 주는 어감은 부정적인 면이 강하다. 그 초점은 '미운 놈'이라는 데 있기 때문이다. 미운 놈에게 떡을 더 주다니 그게 어디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당치 않는 소리이다. 그러니 비아냥 거리는 부정적인 말로 이해될 수 밖에...

그런데, 왜 미운 놈(?)에게 떡 하나를 더 주랴. 우리네 보편적 인식과 심성으로는 미운 놈에게 떡 하나를 더 주기는 커녕 줄 것도 주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중생들의 마음 보따리이다. 좋은 사람에게 좋은 감정이 가는 법. 따라서 좋은 사람에게 떡 하나를 더 주게 되는 것이, 실제로 있어서 미운 놈에게 떡 하나를 더 주기는 극히 어려운 법이다.

그렇다면, 이 속담은 실제 우리 일상과는 동떨어진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 속담에는 우리 선조들의 깊은 마음과 배려가 스며 있다. 미운 놈을 절대 좋은 감정으로 볼 수가 없고, 그다지 좋은 감정으로 대할 수도 없다.

그런 사람에게 떡 하나를 주는 마음이 과연 일어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운 놈에게 떡 하나를 더 주라? 분명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자리를 곰곰히 생각해보자. 그 마음이 보통 마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왜, 미워서 떡 하나를 더 주겠다고 할 수도 있으나 그 마음 깊은 곳에 까지 미운 감정이 자리잡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음은 변화무쌍하여 좋고 싫음도 변하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남녀간에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고, 미움은 더욱 심화되어 증오로 변하나 그 증오 속에는 또다른 사랑이 새롭

게 싹트고 있듯이 미움은 영원한 미움이 아니

요 언젠가는 더 큰 사랑으로 변할 수 있는 미움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운 놈에게 떡 하나를 더 주는 그 마음은 절대적인 미움이 아니다. 그 미움 속에는 영원한 미움이 아니라 사랑과 따뜻한 마음이 내재되어 있는 미움이며, 언젠가는 더 깊은 사랑과 따뜻함으로 변해갈 수 있는 미움인 것이다. 단지 그 계기가 문제일 뿐. 때가 되면 꽃을 피우듯이 시절인연이 되면 화해하는 것이리라. 그런 점에서 떡 하나를 줄 수 있는 마음은 양쪽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하는 작은 마음의 불씨이다. 굳이 불교적으로 말하자면 '불성(佛性)'이라 표현할 수 있겠다.

떡 하나를 더 받게 되는 '미운 놈'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자. 범부중생은 견물생심(見物生心)이요, 물질적 욕탐에 물들여 있다. 그래서 '음식'에 마음 상하는 것이 우리 중생이다. 더구나 나를 미워하는 상대가 나에게 떡 하나 더주기는 커녕 줄 것도 아예 주지 않을 때는 기분이 나빠지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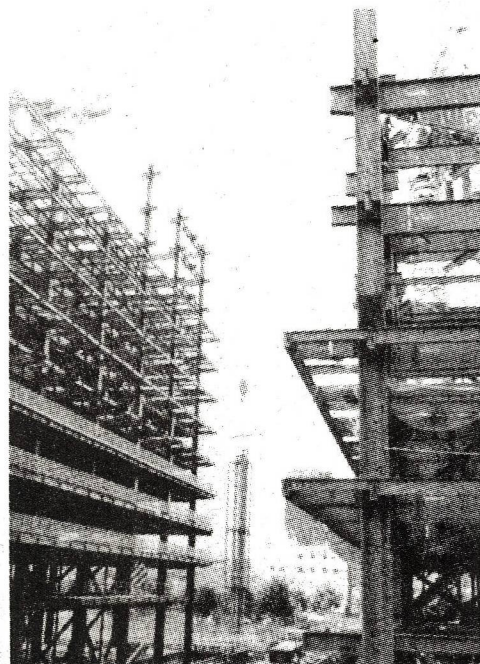
그런데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저이가 나에게 떡 하나를 더 주었다? 이것은 뜻밖으로 받아들여짐과 동시에, 괜히 저자가 좋아질 것 같고 적대감도 없어질 것 같다. 하잘 것 없는 '떡 하나'에도 만생민멸의 마음 작용이 일어난다. '떡 하나'는 일상에서 바로 '마음 한번 돌려 극락'을 얻는 마음공부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매일 우리 진언행자들이 염송정진하는 것도 결국은 마음공부의 연장선이다. 오늘부터 "미운 놈에게 떡 하나를 더 주도록 하자". '떡 하나'에도 부처님의 깨달음과 진리가 있지 않을까.

(법경 법장원 연구원)

옥천건설주식회사

건물의 심장과 같은 설비 공사를 옥천에 맡겨주세요!
25년 장인의 정신으로 성실히 시공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 APT 기계설비공사
- 오피스텔 기계설비공사
- 아파트형 공장 기계설비공사
- 병원 기계설비공사
- 숙박시설·사우나 기계설비공사
- 수영장 기계설비공사
- 사찰 설비공사

- unit FLOWER 공법시공 경험
- PFP 공법 시공 경험
- 25년의 설비시공 Knowhow

이기선 그림속의 불교이야기

여러가지 수인

선정인(禪定印, Dhyana-mudra)

선정인은 결가부좌할 때 하는 수인이다. 손가짐을 보면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해서 배꼽 앞에 놓고, 오른손 또한 손바닥을 위로 하여 왼손 위에 겹쳐 놓는데 이때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서로 맞대는 형식이다. 삼마지인(三摩地印, Samadhi-mudra) 또는 등지인(等持印)이라고도 말한다. 이 선정인은 인도에서 옛부터 있었던 수행인의 자세로서 망념을 버리고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삼매경에 들게 하는 수인으로, 석가여래가 보리수 아래에 앉아 선정에 들 때 바로 이 수인을 취하였다.

함마촉지인(降魔觸地印, Bhumi-sparsa-mudra)

이 수인은 석가여래가 마왕 파순을 굴복시키고 정각을 이룸을 상징하는 수인이다. 보요경(普曜經)과 방광대장엄경(方廣大莊嚴經) 등에 이 수인에 얽힌 이야기가 실려져 있다.

‘깨달음에 이르기까지는 이 자리에서 죽어도 일어나지 않으리!’라 굳은 결심을 하고 보리수 아래 풀자리를 깔고 앉았다. 보살은 욕계를 다스리는 왕 마라 파피야스(魔王 波旬이라 음역되는데 ‘그 이상없이 나쁜 놈’이란 뜻을 지님. 이같은 악마가 천상계의 왕이 된 까닭은 전생에 단 한번 보시를 한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났다고 함.)를 굴복시킴으로서 떳떳하게 무상정등각을 이루며 또한 악의 무리도 선업을 쌓아 무상정등각에 뜻을 두게 하라고 생각하였다. 보살의 양미간의 백호상에서 한 줄기 광명이 뻗어 자 삼천대천세계를 비추어 마왕의 공전에까지 이르렀다. 그 빛 속에서 이제 보리도 땅에서 부처의 자리에 오르려 한다는 대선언이 마왕의 귀에 들린다. 공전이 무너지고 일족에게 배반당하는 등 불길한 꿈에서 깨어난 왕은 보살에게 갖가지 공격을 가해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나 모두 실패한다. 마지막으로 마라는 보살에게 말한다.

“부처가 된다면 해탈을 얻게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보다는 이 세상의 지배자인 황제가 되거나 아니면 천상에 올라 내 자리를 잇는 것이 어떻소.”

보살이 이에 대답하였다.

“마라여, 그대는 단 한번 공양한 공덕으로 욕계의 지배자가 되었을 뿐이다. 허나 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애를 두고 내뿜거나 소 유물이거나 가리지 않고 몇 번이고 중생에게 아낌없이 베풀었다. 때문에 이제 마침내 부처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이다.”

보살의 말이 채 끝나기 앞서 마라는 의기양양하게 말한다.

“과거의 생애에서 내가 공양한 것은 그대가 방금 말한 것과 같소. 그런데 그대가 한 일을 증언할 자는 아무도 없소. 입을 잘못 놀린 탓으로 이 승부는 그대가 져소.”

그러나 보살은 당황하지 않으며 온화한 미소를 띠며 조용히 오른손을 내민다. 그 손에는 지난날 무수한 생애에서 쌓은 선업의 공덕이 담겨 있다. 그 손으로 보살은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고 다리를 어루만지다가 손을 뻗어 손가락 끝을 가볍게 땅에 댄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자비롭게 말한다.

“만물의 의지처인 이 대지

움직이는 것이나 움직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에 공평한 이 대지가

나를 위해 진실한 증인이 될 것이다.

자아, 나를 위해 증언해 다오.”

갑자기 대지가 동서남북 그리고 상하로 진동하고 커다란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리고 수타바라(不動의 뜻)라고 하는 대지의 여신이

슬한 무리를 이끌고 땅으로부터 솟아 올라 반신(半身)을 나타내어 보살에게 예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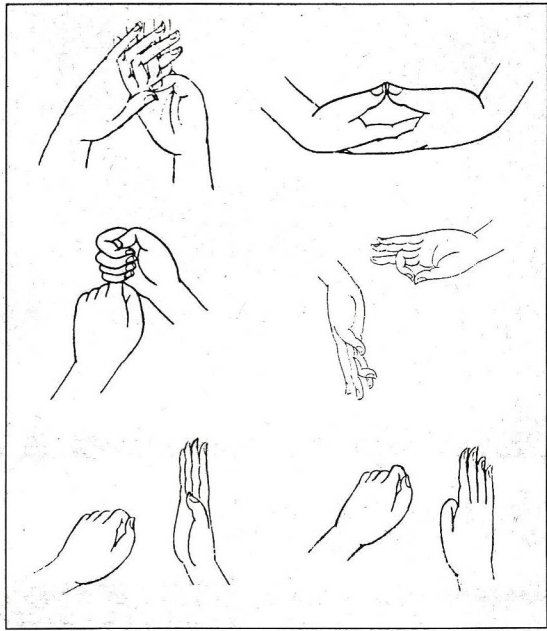
“당신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인간계는 물론 신들의 세계에서도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전법륜인(轉法輪印, Dharmacakra-mudra)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은 생각하셨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이 법을 설할 것인가. 이 법을 이해할 사람은 누구인가.’ 알라나 갈라마도 웃다가 라마뭇다도 이미 죽었음을 천신이 알렸다. ‘그럼 이제 나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이 법을 설할 것인가. 그렇다. 다섯 명의 수행자들이 있구나.’ 부처님은 천안으로 그 다섯 수행자들이 베나레스 교외에 있는 이시파티나의 녹야원(鹿野苑)에 있음을 알았다. 부처님은 우루벨라를 떠나 베나레스에 이르렀다. 그곳에

달가 우선 수행자의법대로 아침나절에는 바윗대를 들고 거리에 나가 탁발을 하시고 식사를 마치고 나서 교외에 있는 녹야원으로 가셨다. 다섯 수행자들은 먼 곳에서 부처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서로 의논하였다. “저기 오는 이는 수행자 고타마가 아닌가. 그는 수행을 그만 둔 타락한 사나이다. 전에 그토록 고행을 하고도 이상을 실현할 수 없었던 사내가 고행을 중지해버렸으니 무엇을 이룰 것인가. 그가 가까이 오더라도 경의를 표하는 일은 그만두자. 그저 수행자의 예절에 따라 발 씻을 물이나 준비하고 음식이나 내주고 나서는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자.”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부처님께서 가까이 오시니 다들 자신도 모르게 일어선다. 예배하며 부처님을 맞이한다. 곁에 걸친

망념을 버리고
마음을 모아 삼매경에 들

가사와 발우를 한 사람이 받아 들었다. 또 다른 사람은 발을 씻어 주었다. 그리고 자리를 내어 가장 뒷자리에 모시었다. 다섯 수행자는 부처님의 얼굴빛이 전과 달리 맑고 깨끗하며 그의 몸에서 순금같은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놀랐다. 하지만 다섯 수행자는 전부터의 습관대로 ‘고타마여’ ‘벗이여’하고 불렀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여래(如來)를 고타마라든가, 벗이라고 불러서는 아니 된다. 여래는 거룩한 자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자이다.”

“비구들이여, 귀를 기울여라. 나는 불사의 경지를 증득하였다.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법을 설하겠다. 내가 설하는대로 수행하면 그대들도 출가의 목표로 삼은 범행의 완성을 똑똑히 보아 스스로 갖추게 될 것이다.”

녹야원에서 베풀어진 최초의 설법-이를 초전법륜(初轉法輪)이라 한다. 법륜을 굴린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진리를 설하시는 것을 뜻한다. 이는 사실상 불교 교단 활동이 시작되어 승보(僧寶)가 이루어지는 뜻깊은 일이다. 전법륜인(轉法輪印) 또는 설법인(說法印)이라고도 불리는 이 수인은 실제 조각에서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손가짐을 경전에 따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왼손의 엄지와 집게손가락의 끝을 동글게 서로 대고 장가락, 무명지, 새끼손가락의 세 손가락은 모두 펴는데 오른손도 같게 한다. 왼손은 손바닥을 위쪽으로 하고 오른팔뚝에 왼손 무명지와 새끼손가락의 끝을 대며, 오른손은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게 한다.

(다음호에 계속)

사원은 지금...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기 위한 전국 각 사원에서 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총지사에 많은 교도들이 참석하고 있다.

제등행렬에 사용했던 옴마니 반배울 장엄물도 보인다.



동대문 운동장에서 열린 연등축제행사 서울 경인지구 합창단, 무용단이 총지종의 깃발아래 즐겁고 흥겨운 시간을 가지고 있다.



정보 다이제스트

인터넷이용자수 2093만명

한달에 한번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국민이 2천만명을 넘어섰고, 이들의 하루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1시간 30분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전국 3582가구 1만58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7살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가 2093만명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체 응답자중 58.1%가 자료 및 정보검색, 19.9%는 오락 및 게임, 14.8% 전자우편, 학습 3.1%, 채팅 1.5%로 나타났다. <한겨레>

청소년 80%, '사회현실에 불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80%가 사회 현실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청소년개발원(원장·崔忠玉)이 지난해 10월부터 두달간 10세 이상 20세 이하의 청소년 5천262명을 상대로 실시, 10월 내내는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8%가 사회 현실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불만 이유로는 전체 응답자의 80.3%(복수응답)가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고 ▲77.8%가 집안과 배경이 중시되는 사회분위기 ▲77.5%가 정의가 통하지 않기 때문' ▲75.6%가 계층에 따른 특혜가 있어서'라고 응답했다. <중앙>

적당한 과체중 사망위험 높지 않다

65세 이상 노령층의 경우 약간의 과체중은 건강에 이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내과학회 월보 최신호를 인용한 14일자 뉴욕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예일대와 코네티컷대 연구팀은 65

세 이상 노령층에게 적용되고 있는 연방정부의 체질지수(BMI)와 사망률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약간의 과체중은 사망률과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누는 BMI 지수가 25-27 정도는 과체중에 해당되지만 노령층에서 이 정도의 과체중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는 비만의 경우와는 달리 과체중 상태인 노령자에게는 체중감량이 필요없다는 일선 의료진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것이라며서 약간의 과체중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그러나 BMI가 28 이상인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사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은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BMI 25에서 29.9까지를 과체중으로, 30 이상을 비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합>

국내연구진, 위암원인균 유전체 구조 완전해독

위암을 유발하는 원인균으로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이로리(Helicobacter pylori)의 유전체 염기서열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완전히 해독됐다.

이번에 해독된 한국인의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의 유전체는 모두 159만1천297개의 염기쌍으로 구성됐고 유전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유전자가 1천454개로 확인됐다.

이같은 결과는 미국과 영국에서 이미 보고된 동일 군주에 비해 4%정도 염기쌍수가 적고 유전자수도 각각 3%와 8%정도 적은 것이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은 우리나라 성인의 90%가 보균자로 알려진 세균으로 환자에서 분리된 균주마다 서로 다른 유전체 구조를 가진 특이한 세균집단이다.

유전체사법단 관계자는 “이번 염기서열 해독으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의 유전적 구조의 다양성을 상세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위암의 조기 예방법 개발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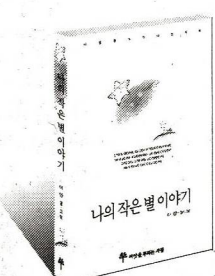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나의 작은 별 이야기

상상해 봐. 네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랑으로 다가오게 될 때.
그때 네 곁을 하나, 네 눈짓 하나 하나가 모두 기쁨이 되지 않겠어?
고개를 들어도 고개를 숙여도 온통 사랑뿐인 거야.
그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네 별로 보일 거야.

나는 누구인가? 나와 너는 어떤 관계인가?

마음의 연못에서 길어 올린, 존재와 사랑에 대한 생물 같은 깨달음!



이 안 글·그림

1957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침대에 불교에 입문하여 생활선(生活禪)을 수학했다. 집필과 출판일을 하며 존재의 본질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일반화·현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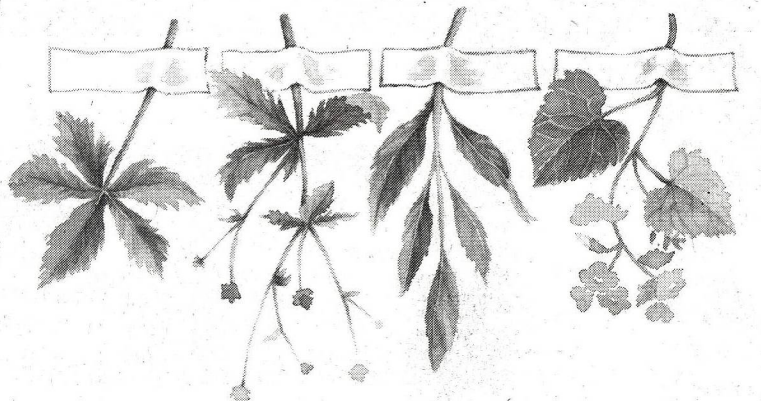
양장본·올컬러/204쪽/값 8,000원



씨앗을 뿌리는 사람
SIAT Publishing Co.

TEL:(02)511-3495-6

FAX:(02)511-3498



참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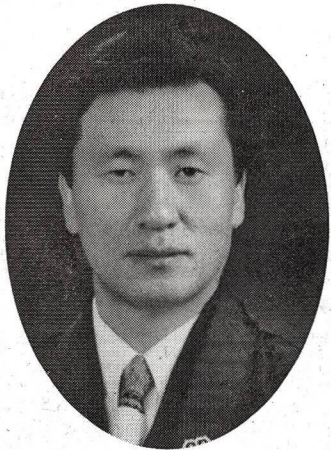
네 가지 약속

돈 마구엘 루이스 지음/정미선 옮김

우리의 지친 영혼을 자유로운 삶으로 이끄는 특별한 약속들!

말로 죄를 짓지 말라
아무 것도 자신과 관련시켜 받아들이지 말라
추측하지 말라
언제나 최선을 다하라

양장본·올컬러/184쪽/값 8,000원



경주 국방사 주교
법 성

지상설법

교회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언

I. 들어가면서

밀교의 토양이 척박한 한국불교에 밀교의 법맥을 상충하고 이땅에 진정 정통밀교의 꽃을 피우기 위해 원정종조께서 총지종을 개종한지 어언 삼십년이 되었다. 이조 오백년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밀교인 지라 창종 당시의 교회의 어려움은 어찌 글로써 다 표현하랴. 온갖 곤란을 무릅쓰고 교세발전을 위해서 무진사원으로 애쓰시던 종조님을 비롯하여 창종 당시의 선대 스승님들과 보살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불교에 있어서 불교사를 새로 써야 할 만큼 우리 종단의 위상이 몰라게 달라진 것은 교세가 인정하는 바이다.

이는 1,600년 한국불교사에 있어 하나의 기념비적인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앞만 보고 힘차게 달려온 우리 종단은 미래의 급변하는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한 탓으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는 신교도 제도에 관한 문제와, 둘째는 승직자(僧職者) 양성에 관한 문제가 대두하게 되었

다. 이 두가지 원인이 결국 교회의 정체성(停滯性)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적어도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근본해답을 찾지 못한다면 교회의 부진은 계속될 것이며 나아가서 종단의 미래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교회의 정체성이란 주시위는 이미 던져졌으며 총지종의 흥망성쇠의 주역은 우리들의 몫으로 돌아 왔다. 종교는 새롭게 인식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을 때는 소멸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종교사가 입증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실갈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종교는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것이다. 교회란 부처님의 진리로 중생을 가르쳐 착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생명체를 가진 즉 유정물(有情物)은 다 부처님의 교회의 대상이 된다. 본 난에서 다루고자 하는 교회는 광의의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많은 신교도들이 입교를 할 수 있는지 또 입교를 하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 원인이 있다면 사람에게 있는 것인지 제도가 잘못되었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물론 '교회활성화 방안'이라는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문제에 해결점을 접근해 볼려고 노력하지만 탁상공론에 그칠지도 모른다. 사실 이론과 현실은 어떤 면으로 볼 때 천양지차일 수도 있다. 다만 여기

서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은 교회부진의 총체적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전 승단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혜를 모으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저의 생각이 새로운 대안으로 중무에 반영되기를 바라지도 않으며 또 그렇게도 할 수 없으며, 만에 하나라도 종단발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다면 승단의 일원으로써 본분을 다 했을 뿐이다. 심각한 교회문제는 노보살님들이 떠난 자리는 누가 메꿀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어제오늘에 불거져 나온 것은 아니며 어느 특정한 문제를 떠나 승단이 고민하기 때문에 저 혼자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답을 던진다는 것은 이란부석(以卵投石)이고 또한 비웃을 거리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문제만은 종단의 사활이 걸려있으므로 승직자의 일원으로써 간과(看過)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금 당장은 한 개인 어느 사원이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방치한다면 종단의 미래는 보장할

후에 살아 남기 위해서라도 늦었다 싶을 때 대책을 세우는 것이 빠르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포교의 주 대상을 살펴보면 첫째는 의학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라 병든 사람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포교를 하게되



총지종의 흥망성쇠는 우리손에

현실변화에 적응하기위한 다양한 방법 필요

수 없음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먹는나 먹히느냐의 심각한 종교전쟁(?)에서 도태(淘汰)되지 않고 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승직자 모두가 이 문제를 고민하고 여기에 대한 제언(提言)이 붓물 쏟아지듯이 나오기를 필자는 기대해 본다. 해암통리원장께서 "종단이 나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바라지 말고 내가 종단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취임사의 일부분을 아마도 잘 기억할 것이다. 지금 종단이 겪고 있는 실체를 정확히 진단하면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될 마지막 단계까지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부터는 승속이 따로 없고 집행부와 승단이 따로 없다. 작은 것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하고 집행부는 귀를 기울여 승단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들어야 한다. 이제부터 교회의 부진에 대한 원인을 가식없이 솔직하게 나열하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기로 하자.

II. 교회 정체성의 원인과 대책

1. 교회의 전략을 바꾸자.
해방의 기쁨도 채 가시기전에 동족상잔의 비극을 맞아 국민경제생활은 말할 수 없이 비참했다. 외래종교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도 우리 민족이 겪었던 비극과 궤를 같이 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이십년 뒤 겨우 먹을 것은 해결할 시기인 70년대 초에 우리 종단이 고고(呱呱)의 소리를 울리고 창종을 하였다. 창종한 후

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마음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한 사람이라도 해탈시키면 줄줄이 제도가 되었다. 육신의 병이라도 한첩의 약을 먹지 않고도 해탈한 보살은 부지기수이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으로 짓는 것이니 육체적인 질병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우리는 의학이 최고도로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의료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으므로 병이 나면 시설 좋은 병원을 선택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굳이 '진양'을 통해서 질병을 고칠 사람이 거의 없어진 셈이다. 현대인은 육체노동보다 정신노동이 많은 탓인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쌓여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예전보다 훨씬 더 늘어났지만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신앙을 통하여 고행하기를 꺼린 다.

현대인은 무엇인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은 꺼리기 때문에 불공하는 것도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착안을 두고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야 한다. 종조님 말씀에 "불공중에 오는 마장은 육행악으로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만일 불공중에 몸이 아픈 법문이 있다면 불공만할 수 있겠는가? 지금의 시대적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하겠다. 솔직히 스승도 이런 경우

는 꼭 진리로써 해결하라고 고집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왜냐하면 보살들이 아프면 약과 병원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에 틀어박혀 불공을 한다해도 쉽게 해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질병으로 입교하는 신교도가 거의 없어 졌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가난 해탈이다. 새마을운동으로 겨우 먹는 것은 해결됐다 하더라도 하류층에는 아직도 먹고사는 것이 큰 화두임이 분명했다.

우리 종단의 가장 큰 특징이 매일하는 정승(定誦)과 정시(定施)로 복의 씨를 심고 밥을 지을 때마다 식구수대로 한 손가락의 쌀을 부처님께서 공양 올리므로서 식욕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절양회사법이 있다. 이 법을 의심없이 그대로 실천한 보살님은 현재 경제적으로 해탈되지 않는 가정의 드물 정도이다.

쌀알 하나 하나에 공덕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절양회사법은 갑자기 들어닥친 마장을 없애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물론 법대로 회사를 해도 왜 안되는나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해답은 탐심을 끊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초창기에는 가난한 사람이 제도가 많이 되었지만 이제는 국민 스스로가 중산층이라 할 만큼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다보니 이것마저도 제도의 대상을 잃어버린 셈이다. 세번째는 미신과 파를 꼽을 수 있다.

이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로 질병, 관재, 사업실패 등 가정에 이러한 우환이 있을때 마다 미신에 많이 의존해 왔다. 미신으로 인해 불행으로 좌초한 가정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그 만큼 당시에는 미신에 많이 의존해 왔다. 신종 외래종교의 성공전략도 미신타파에 있었으며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신앙하고 있던 불교마저도 미신으로 간주하고 혹세무민하여 신종종교로 유도했으니 다른 신앙의 형태는 말할 필요가 없다.

미신에 대한 접근은 대부분 무지(無知)일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것만은 아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적인 정서에 올바른 믿음을 제시하는 종교가 없었기 때문이다. 조금만 국민성도 어쩌면 미신과 잘 맞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그 당시의 사회환경과 국민정서가 맞닥뜨려 정통밀교가 혐오도 간직할 수 없는 대안을 제시한 결과로 미신 때문에 불행을 겪었던 가정이 제도되어 점차 해탈되어 안정되어 갔다. 따라 많은 가정을 밀교로 인도하게 되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에 대한 포교가 성공할 수 있었던 전략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기초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그래서 미신에 대한 시각도 많이 달라졌으며 거기다가 다종교시대에 종교가 많은 역할을 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미신 때문에 불행을 겪는 가정을 제도하는 것도 대상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다음호에 계속)



마는만큼 보이고 느끼다

총지종과 진각종 그리고 진언종의 차이점은?

문: 우리 나라에 밀교종단을 표방하는 종단이 크게 총지종과 진언종 그리고 진각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세 종단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역사적인 연관성은 무엇인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디가 simuen인 독자로부터)

답: 총지종 진각종 진언종은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교상과 사상의 이견등 여러가지의 이유로 인하여 분종이 되었습니만, 역사적으로 진각종에서 진언종으로, 또 진각종에서 총지종으로 분종되었습니다. 지금은 별개의 밀교종단으로서 각기 독특한 수행법으로 종생제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각종에서 진언종, 총지종이 분파되었다는 내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 사실에 안주하느니 서로가 독립적 종단으로서 서로 협조하고 공동발전해나가는 것이 한국밀교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들 세 종단의 차이점으로는, 첫째, 총지종, 진각종의 스승님(현교의 스님)들은 머리를 깎지 않는데, 진언종은 삭발승

총지종은 음마니 반매혹과 준제진언을 같이

과 유발스승님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로 총지종, 진각종은 불상을 모시지 않고 비로자나부처님의 또다른 모습을 하고 계신 관세음보살의 본심진언인 육자대명왕진언 '음마니반매혹'을 모시고 있는데 반해, 진언종은 비로자나부처님의 불상을 모시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총지종, 진각종은 일반적인 현교의 승복과는 달리 법의와 금가사만을 수하는 데 반해, 진언종은 삭발승의 경우 일반 현교스님들처럼 승복 일체를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총지종과 진각종의 경우 가장 큰 차이점은, 첫째, 총지종은 '음마니반매혹'의 법자를 본존으로 삼고 있으나, 진각종은 금강계만다라에 나타나 있는 37존을 모시고 그 가운데 한글로 새겨진 '음마니반매혹'을 본존으로 봉안하고 있습니다. 둘째, 음마니반매혹을 염송할 때, 총지종은 오른손에 108염주를 쥐고, 왼손으로 금강권을 하여 염송을 합니다. 진각종은 금강계대일여래를 나타내는 '지권인'을 결하여 염송합니다. 따라서 총지종은 염주의 횟수를 정하여 염송하고, 진각종은 시간을 정해놓고 염송합니다.

윤달수의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만져 보신 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세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살아계신 어른께 어떻게 사후의 옷을 마련해 드릴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로부터 선조들은 죽음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믿었으며, 윤달에 수의를 장만해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윤달 수의는 무병 장수한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연화회는

생활불교에 꼭 필요한 일들 중 스님들이 직접 하기 힘든 장례의식을 도와드리는 모임입니다

서울 조계사 앞에서 불교장의사로 일해 왔습니다.

- 재가불자, 스님 장례 전문 • 윤달 수의, 스님 수의 제작 • 이장업무, 장지알선
- 보살 및 비구니 스님 장례시 여자본이 염을 해드립니다.

장례발생
즉시연락
(자택·병원)

연화회
불교식 장례
종합서비스



대한불교 연화회 전 화: (02)732-9618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95-2

충지논단



차 차 석
(동국대 강사)

최근 정치의 계절이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치인들이 불교계 행사에 출입하고 있다. 불교신도로서 불교행사에 참석하는 일은 그다지 나팔 일은 아니다. 이교도이면서도 대선이나 자치단체장 선거가 임박하니 표를 의식해서 참석하는 것이다. 문제는 손님으로서 조용히 참석하고 가면 그만인데 그들을 위한 잔치집인양 떠벌이다 썰물처럼 빠져나가 불교행사장을 엉망으로 만든다는데 있다. 따라서 차체에 불교인들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를 상기시키고자 한다. 한마디로 최근 불교계는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들이 있는가 의심스럽다. 모두 부처를 팔아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이비들만 득시글거리는 것 같다. 경전에서는 출가자가 국가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었을까. 초기불교에서는

국가의 권력에서 벗어나 승가 자체를 기반으로 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으므로 출가수행자가 국왕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출가자가 국왕을 가까이 하면 열가지의 과실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다.

《중일아함경》 제42권 《결금품》에서도 국왕을 가까이 하는 출가자는 열가지 과실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다. 나아가 국왕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국왕이 요청하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들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을 강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강대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국왕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이유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생각은 출가수행자들은 “국가에 속하지 않는 존재” 즉 “국가를 벗어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단 불교에 한정된 사고방식은 아니었다. 인도사상사에서 구루로 지칭되는 출가자들 일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의 정교분리 원칙이 일찍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권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런 점에서 국왕과 마찰을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다.

따라서 국왕이 설사 불교도라 하더라도

“왕이 통치하는 국가의 영토를 침범하거나 비방하지 마라. 또 왕이 뛰어다니는 곳에서는 논하지 마라”고 말한다. 국가의 인연을 논하는 것은 멸진정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며 사문의 正法을 얻지 못하며, 심지어는 국사를 논하는 것은 正業이 아니라고 엄격하게 교훈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 자체는 승가가 추구하는 이념에 유익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단을 정략적으로 이용당할 우려도 했으리라 생각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의에 합당하지

그러나 승가의 이상과 같은 태도는 역사 속에서 쉽게 지켜질 수 없었다.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무리들이 국왕과 결탁하거나 권력자와 결탁하여 승단을 이용하는 일이 많았다. 정교분리의 원칙이 일반화되어 있는 인도에서 보다는 중국에서 그러한 경향은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소위 중국불교사에서 3부1종의 법안으로 알려진 불교박해의 이면에는 불교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이익 내지 사사로운 이익을 탐닉했기 때문에 그 발미를 제공했다는 점을 발견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불교전래 초기에는 외국승려들을 중심으로 불교교단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5세기를 전후로 출가자들 스스로가 왕권에 기생하여 승단의 정체성을 망각하는 일이 발생하며, 당나라 시대 이후가 되면 불교교단은 완전히 국왕의 통제하에 어용불교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것들을 미화하여 호국불교라 부르고, 이러한 호국사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인왕호국반야경》과 같은 위경을 만들어 교단과 불교도들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도가 되면 근대불교 이래 사회개혁을 통해 불국정토를 건설하고 일체의 생명체들이 평화롭게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구심점이 되었던 불교도들의 염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국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불교도의 본분이고 출가자의 본분이 되어 버린 것이다. 출가자 스스로 중국 고대의 봉건제도를 모방하여 승가를 조직하고, 출가자 내부에 계급제를 도입하여 왕명을 통해 교단을 통제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현실화 되어 버린 이래 현재까지 그것을 대단한 전통인 것처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불교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들었고, 마침내는 중국불교가 망하는 지름길이 되었던 것이다.

근대중국불교부흥을 이끌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구양점은 중국불교 패망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선종이라 지적했는데 그 이유는 당나라 시대 이후 가장 권력과 유착했던 종파가 선종이며, 그러므로 불교 교단 본래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이라 본다.

현재 중국에서 선종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 불교교단이 본래의 정체성을 버리고 가장 중국화된 불교가 바로 선종이라 보기 때문이다.

역사의 입장은 시각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사라질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 본다.

인도에서 지나친 밀교화가 불교의 역사적 퇴장을 재촉한 것이나 우리나라 고려시대의 불교가 무비판적으로 중국불교를 수입한 이래 권력과 밀착하여 자기 정체성을 망실하였기에 성리학에 의해 퇴출 당하는 비운을 맞이한 것이나 동일한 시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불교의 절대적 영향권 안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불교는 외세에 의해 해방과 더불어 정교분리의 민주제도 아래서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나 자원의 질적 저하와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권력과의 유착관계가 어떠한 정도인가에 따라 출가자의 지위를 평가하려는 우를 범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메이지 유신 이후 불교를 박해하자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국민들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사업, 사회복지사업, 문화사업 등에 매진한다. 그 결과 각 종단의 정체성을 침해받지 않고 세계불교계를 이끌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권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불국정토를 건설하고, 국민들의 의식을 계몽하여 성숙한 시민사회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불교도들이 추구하는 참된 영원성의 추구이다. 그러나 최근의 세태는 우리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특히 종단의 지도자들이 스스로 권력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면 신도들이 앞장서서 저들이 종단행사에 출입하는 것을 강력하게 제지해야 한다. 그것이 교단의 항구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충지동의보감

폐암의 예방지침

며칠 전 신문에서 몇 년 지나면 남자 암 환자에서 폐암으로 사망이 국내에서 1등이 될 것이라는 보도를 보고, 폐암을 수술하는 한 사람으로 폐암의 예방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몇 자 적어 봅니다.

첫째, 성인에게는 담배 피우는 것이 폐암 발병률이 높다는 것을 이해와 설득으로 각자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보고에 의하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폐암 발생 빈도는 인구 10 만명당 3.4명인데 비해, 하루 10 - 20 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폐암 발생 빈도는 10 만명당 59명 그리고 하루 40개비 이상의 담배 피우는 사람의 폐암 발생 빈도는 10 만명당 무려 217명이나 된다고 발표하고 있다. 흡연을 중단한 사람들에서는 현재까지 폐암 발생률이 감소한다. 한 보고에 따르면 흡연 중단 후 2 - 15년간 점진적인 폐암 발병 감소율을 보이다가, 15년이 지나면 일상적인 흡연을 하지 않았던 사람과 동일한 폐암 발생률을 보인다고 한다.

둘째, 담배습관이 들기 전의 청소년들에게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실의 홍보 및 정보제공을 한다. 그래서 청소년 때부터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한다.

셋째, 담배제조 회사에 중과세하여, 꺾임으로 인한 생산력 감소, 국민보건비와 폐암 연구기금 등에 충당한다.

미국에서는 매년 10억불을 초과하는 자금을 암 연구에 사용하고 있다.

넷째, 국회 입법위에서는 담배를 해로운 약품과 마찬가지로 금연 입법 수립을 하여야 한다.

다섯째, 담배 피우지 않는 사람들이 담배연기가 없는 환경에서 작업하고, 살 수 있는 권리의 보호 정책 수립하여야 한다. 실제 한 연구에 의하면 담배 끝에서 나는 연기가 빨라 드리는 연기보다 암 유발원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흡연은 폐암 발병률 높다”

여섯째, 전혀 해가 없는 담배의 개발 촉진한다. 일곱째, 폐암을 일으킬 수 물질, 예를 들면 석면(asbestos), 클로로메틸에테르(chloromethyl ether), 방사선물질, 중금속물질, 다환탄화수소(polycyclic hydrocarbons), 나이트로사민(nitrosamines) 등의 노출량의 측정 및 조절하는 장비의 개발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환경오염과 직업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은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서 살아가지만 담배에 대한 문제점은 각자의 노력으로 금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도 약 4년간 금연하여 오늘날까지 한 개피도 피우지는 않았지만 지난 동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들고 아직도 어떤 때에는 피우고 싶은 욕망이 생겨납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흉부외과 교수 안 옥 수>

역삼재가복지센터소식

가정의 달 5월 노인복지센터 다양한 행사 열려

■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지역 어르신들께 맛있는 점심을 대접해 드리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200여명의 어르신들께서 참석하여 점심 식사와 떡, 과일, 막걸리를 드시면서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저소득 재가어르신들께는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전달해 드렸으며, 자원봉사자들과 직원들이 어버이 은혜, 어머님 마음을 함양하며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 드렸다. 어르신들께서는 물기 어린 눈으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고, 자원봉사자들은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것을 흐뭇해 하는 모습은 가정의 달 5월에 부모님과 가정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이날 참석하지 못한 어르신들께서는 자원봉사자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선물과 식사를 제공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이용자와 가족이 더불어 뜻깊은 시간을 마련하고자 자체 행사를 계획, 진행하였다. 먼저 5월 8일 어버이날에는 이용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지역내 청운유치원

과 공동으로 자리를 마련, 어버이날 기념 행사를 진행하였다. 무의탁 노인을 포함한 주간보호 이용어르신에게 자존감을 고취시키고 지역내의 경로호친 사상을 부각시키고자 진행한 이번 행사는 청운유치원 아동들이 어르신들에게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율동과 노래들의 준비한 공연을 보여

종조님 말씀에 “어버이에 효순하면 자식도 또한 효순할지니 내가 불효하면 자식이 어찌 효순하겠느냐. 효순은 심덕의 대원인요 백행의 근본이며 보리행의 으뜸이 되는 것이니라.”

드림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진한 감동을 전해 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함께 참여한 가족 및 기타 다른 사람들에게 노



인공경에 대해 재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고, 지역 내에 본 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홍보할 수 있었던 행사였다.

이어 5월 11일 진행한 나들이는 평소 외출이 부자유스러운 주간보호 어르신들을 모시고 춘천 중도국민관광지로 다녀왔다. 배를 타는 일정으로 어르신들에게 무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했던 바와 달리, 몇 십년 만에 타보는 배라며 좋아하시는 어르신과 어르신들을 위해 열심히 솜씨 바빠주어 고기를 굽던 가족과 봉사자들,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번 춘천으로의 나들이는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활력을 드림은 물론, 이용자와 가족을 비롯, 봉사자, 직원 모두의 단합된 모습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행사였다.

불기2545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처음도 좋고 끝도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불자를 위한 불교 전화기 부루나폰

국내 최저 가격에 기능은 최고의 발신자 정보표시 전화기

잠깐 자리비운 사이 중요한 전화 놓친적 없으십니까?
이제 부루나 폰(Buruna phone)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부루나폰
BURUNA PHONE

●부루나(BURUNA): 부루나 폰자는 부처님으로부터 설법 제일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의 본명은 푸르나 마이트라야니 푸트이며 푸르나는 “충만한” 뜻으로 자애로운 마음으로 충만한 여성의 자식 이할수 있다. (滿慈子)(滿慈子)

2001년 5월 1일 ~ 2003년 3월 31일까지
전화사용요금의 5% 할인혜택

발신자 번호를 199개까지 기억
(부재중 전화포함)

클랙기능과 재다이얼기능

장거리 지역번호 자동입력 장치

VIP 저장기능 및 단축다이얼 10개 저장

신·후불카드번호 저장 및 다이얼, 개인암호

외부로 건 전화번호 및 통화시간을
45개까지 기억기능

핸드폰 및 시외전화 잠금장치

빅히트
일본수출품



부루나폰
BURUNA PHONE

충청남도의 (주)리치웨이/(주)누보텍
TEL: (02)2271-1020(대)
FAX: (02)2271-1025

종립학교 소식

종립 동해중학교 다양한 행사 거행



부처님 오신날 봉축연등 시가 행진

정각사 교도 및 동해중학교 학생 200여명이 참석하여 지난 4월 29일 불기 2545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은 2545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은

고 불교총지중이 새겨진 맞춥복을 입은 교도들은 총지중의 오색깃발과 거리공연으로 연도에 많은 시민들로부터 관심과 박수를 받았다.

특히 동해중학교 풍물패는 초파일 당일 대종불사를 마치고 풍물공연을 부산 정각사에서 벌여 시민을 찾은 많은 교도들로부터 박수와 격려를 받았다.

동해중학교 풍물패는 작년과 비교해서 인원수도 배로 증원되었으며 악기며 도구 등도 많이 보강되어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종단의 각종 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학교운영위원장(채 현숙)과 어머니회장(박 옥연)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다채로운 스승의 날 행사를 가졌다.

동해 풍물패의 길놀이로 시작된 식전행사와 꽃다발과 꽃배지 증정식 학생대표의 사문사와 학교장의 기념사가 있었다.

강경중 교장선생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 선생들은 이 시대, 2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나라의 겨레의 큰 스승이요, 등불이다. 나를 낳아 주신 부모님의 은혜도 크지만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학생들의 영혼에 지혜의 촛불을 밝혀주시는 스승의 은혜도 그에 못지 않기 때문에 군사 부일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이다. 스승과 제자의 만남은 사랑과 존경의 진정한 만남이어야 하므로 오늘 이 날을 참 스승이 되고 참 제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뜻깊은 스승의 날이 되기를 기원해 마지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이 날 학부모회에서 도서실에 다과의 자리를 마련하여 선생님들과 학부모, 졸업생들이 함께 어우러져 동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였다.

학교 발전기금 예상외 성과

종립학교인 동해중학교는 보다 우수한 교육시설을 마련하여 자라는 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지난 달 4월 초부터 학교 발전기금을 조성하게 되었는데 5월 중순인 지금까지 예상외의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학부모의 높은 참여로 큰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동문회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지금까지 현금 목표액인 1천5백만원을 상회하였으며 현금 대신 물품을 기증하는 분들도 많았다.

학교는 이번에 조성된 발전기금으로 방송기자재구입비 1천만원, 풍물패 육성 3백만원, 그리고 도서관 정보화 기자재 구입에 기금이 쓰였다.

학교발전기금조성이 이렇게 큰 성과를 올리게 된 것은 선생님들이 새롭게 단합하여 그만큼 학생지도에 의지와 열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고 학부모와 동문회가 감동한 결과 이루어진 성과라 평가되고 있다.

중국 불교학 연구 전망 밝다

차차석 박사 논문 화제

차차석 박사(동국대 강사) "개방 후 당대 중국불교학의 흐름과 전망"의 논문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불교학 28집에 발표한 이번 논문에서 "중국불교학계에서 재가

중심의 종교연구소와 승가중심의 불학원 등이 설립되어 불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30~40대 소장학자들이 불교학 논저를 발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

국불교학의 전망은 밝다는 진단을 했다.

중국의 사회과학원이나 불학원에서 발간한 최근 자료를 인용하여 중국정부는 불교의 회통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여러 민족 간의 화합의 방편으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불교학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씨는 이같은 변화의 계기로 중

국정부가 80년대 이후 실시한 사찰 재산보호정책을 들었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불교 사원경제가 내실화 되어 1980년부터 1995년까지 41회의 국제학술회의를 열었으며, 현재는 대만·일본의 불교 학계와 공동으로 정례학술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중국불교학계가 발전했다는 것이다.

또한 차씨는 대만과 홍콩 자본을

기반으로 수많은 학술서적과 불경, 논서 등이 간행되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중서적도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임계유, 조박초, 갈조와, 홍수표, 양증문 등 중국의 불교학계를 이끌고 있는 학자들과 사회과학원, 종교연구소 등 30여 개의 연구단체들을 조명하고 그 성과를 정리했다.

원정대성사 함께 하는 비주얼밀교

글/그림: 정수일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2-13 성지빌딩 503호 (110-300) TEL: 733-4277(FAX: 733-4279)
ID: PUBMS (한미안, 나무누리, 하이텔) E-mail: pubms@chollan.net, PUBMS@hanmi.net

명상

소설 토정비결 2부 당취, 이재운 역사소설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소설 당취와 함께 '소설 토정비결'도 새로운 모습으로 독자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전 5권 완간!

이놈의 세상, 왜 이리 혼란스럽노? '당취'의 몽둥이로 실컷 두들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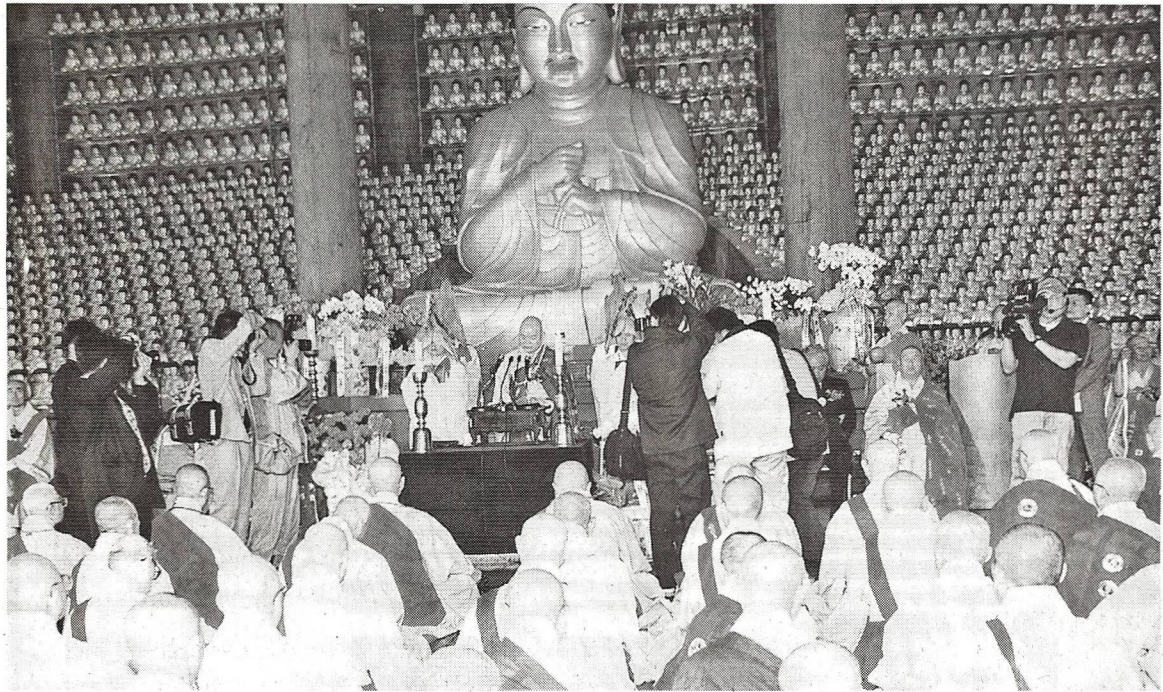
정신 한 번 번쩍 들게 두들겨라.
얼빠진 대감 나으리들, 한심한 졸부 한랑들,
구린내 나는 경제 관리들, 공부 안 하는 훈장 나부랭이들,
본분을 잊어버린 의정 나으리들,
정신이 들도록 실컷 두들겨라!

이재운 대하 장편 소설
신국판 / 전 5권 완간 / 각 7,500원

토정의 정기를 받고 이재운이 입을 열었으니 세상 또 한 번 시끄러워지겠다!

1권: 토정이 남긴 비기
2권: 불꽃이 떨어지기 전
3권: 버려진 백성들의 세상
4권: 평양성에 내리는 눈
5권: 끝나지 않은 겨울

태고종 총무원장, 진각종 통리원장 취임 승려기강확립, 참여·화합·회향 각각 취임사 밝혀



태고종 제 21대 총무원장 혜초스님과 부원장 대운스님 취임법회가 지난 10일 서울 신촌 봉원사에서 봉행됐다.

혜초스님은 취임사에서 “종단이 더욱 발전하고 보다 완전한 선진 대승교화종단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선하고 개혁해야 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종헌, 종법 합리적 현실적 개선, 행정권한 지방종무원으로 대폭 이양, 종단 승려기강 확립, 종도 화합종도 조성등을 우선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각종도 지난 17일 26대 효암통리원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효암통리원장은 취임사에서 참여

/ 화합 / 회향의 문화 종단을 실현하기 위하여 신교도가 각급 단위에 주체로 나서는 참여시스템을 개발 실행할 것이며, 포교영역과 교육영역 및 복지영역과의 연계로 지식정보화를 선도할수 있는 종단을 만들것이며, 밀교유적지 복원 및 성지 성역화 불사, 납골당 및 복지타운 건립, 통일, 평화불사를 전개 하겠다 하였다.

이날 북한 박태화 조불련위원장 은 축하메세지를 통해 “25대 통리원 시기에 귀 종단과 우리 연맹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서로의 협력과 연대는 더욱 강화 발전했다”며 “새 통리원장과 종단이 6.15 남북 공동선언의 실천과 민족대단합,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지난 시

기와 같이 변함없이 우리 연맹과의 협력과 연대 단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는다”고 밝혔다.

재가불자 수행이론서 격월간 참여불교 창간

재가불자의 수행과 실천, 사회적 문제의식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격월간 <참여불교>가 지난 10일 창간됐다.

창간호 주요기사는 △교단자정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다룬 창간기획좌담 △한국국교 권력과 시민사회특집기사 △국가권력과 시민사회특집기사 △국가구원과 종교, 세계의 공동체를 찾아서 기획 연재등이다.

최승천 편집위원장은 “불교계 잡지가 열악한 상황에서 한국불교 및 종교의 주요흐름과 쟁점을 충분히 대변하고 방향을 제시할수 있는 ‘참여불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부산 범어사 재무국장 국고보조금 횡령

조계종 문화재 관리소를 문책하겠다 의지 밝혀

지난 14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96년부터 범어사 문화재 개보수를 위한 국고보조금 70억원 가운데 23억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자취를 감추었던 범어사 재무 석호스님을 조사중이다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석호스님은 문화재 시설 보수, 신축공사에서 목재구입비나 공사금액 등을 허위로 작성, 국고보조금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범어사측은 대책위(위원장 중원)를 구성하여 “국민과 불자들 및 관계기관에게 사죄드린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이번 사건에 대

천태종 4년제 금강대학교 기공식

2003년 개교할 4년제 종립 정규대학인 금강대학교 강의동 3,603평과 기숙사 3,265평, 안내실 15평 총 6,883평의 규모인 금강대학교 기공식을 지난 5월 5일 논산시 상월면 대령리에서 성대하게 거행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도용 종정에 하를 비롯 전운덕 총무원장스님, 박형철 참의원장, 박덕수 총무부장스님과 각부 부장스님, 장도정 총회부의장, 본산 대종스님과 탄우 관촉사주지스님, 창법 논산사암연합회장, 심대평 충남도지사, 임성규 논산시장, 이인재 국회의원, 강두식 논산시의회 의장, 양재천 논산시장경찰서장, 이영복 논산시 교육장, 민병규 충남일보 사장, 송중빈 송영철 충남도의원 등 사부대중 2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덕수 총무부장스님의 사회와 김영재 책임부전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기공테이프 절단, 삼귀의, 독경, 장도정 총회부의장의 대조사 법어 봉독, 이월장 법인사무처장스님의 경과보고, 전운덕 총무원장스님의 법어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전운덕 총무원장스님은 건립기공식 법어를 통해 “대조사님께서 불법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고 우리 천태종의 천년대계를 위하여 교육사업의 긴요성을 체감하셨던 것”이라고 말하고 “대조사님의 유지인 금강대학교의 건립을 위해 정성과 힘을 모아 종단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종단의 위상을 드높이며 한국불교 중흥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법어에 이어 심대평 도지사와 이인재 국회의원, 임성규 논산시장, 탄우 관촉사 주지스님의 축사가 이어졌다.

한편 이번엔 기공된 금강대학교는 대조사님께서 73년 8월 불교종흥과 인재양성을 위해 금강대학교 설립을 명하신 이후 82년 10월 대종 대종사께서 대조사의 유지를 받들어 금강학원 설립을 결의하셨으며 97년 3월 4년제 종합대학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구인사에서 개최하여 김영춘 종정큰스님을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추대하고 학교법인을 금강불교학원으로 명명하였다.

97년 8월 학교법인 금강불교학원을 육영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하고 2000년 4월 교육부로 금강대학교 설립 위치를 상월면 대령리, 상도리로 변경을 승인받고 내년 8월까지 준공식을 갖고 2003년 개교를 앞두고 있다.

쓴소리 단소리

승단총회에서 찾은 작은 희망

종단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승단총회가 지난 22일에 열렸다.

승단총회는 총지종단의 모든 스승님들이 모여 승단의 최고 수장인 종령선출과 종단의 뼈대인 종헌개정 및 제정, 집행부의 견제역할을 하는 종의원선출등 종단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선출을 하는 최고의 결기구이다.

이번 승단총회에서 여러 가지 종헌에 개정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제8대 종의원 선출이 있었다. 종의회는 국가의 국회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통리원장, 사감원장의 인준에 관한 사항 및 임원선출, 예산 결산 및 종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징계 사안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는 승단

의 중차대한

기구이다.

이런 중차

대한 일을 하

는 제 8대 종

의원 선출이

바로 지난 승

단총회에서 있었다. 그리고 이번 승단총회에서 작은 희망을 얻을 수 있었다.

전국의 스승님들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이번 선거에서 무엇보다도 많은 표를 획득하면서 젊은 스승님들이 종의원에 선출 되었다는 것은 바로 종단의 스승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도들이 바라고 있는 점일 것이다.

바로 스승님들의 직접 선출한 젊은이의 수월과 그 수월량(투표수)에서 작은 희망을 잃어야 하며, 그 희망은 종단을 구성하는 모든 대중들의 희망일 것이다. 또한 그 희망만큼이나 거는 기대 또한 자못 크다 할 수 있다.

어느 사회, 어느 조직, 집단의 발전은 진보와 개혁, 노장과 소장의 조화와 화합이 보장될 때 조직에 동맥경화가 걸리지 않고 생명력과 활력을 준다.

이번 종의회에 선출된 젊은 스승님들은 누구보다도 총지종단의 애정과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있을 것이라 본다.

젊은이 수월로 종단 발전에 패기있고 조금은 급진적이라도 젊은 생각들을 펼쳐 종단이 매너리즘에 걸리지 않고 관성화되지 않게 종의회 활동을 기대해 본다.

불교방송 사내폭력 직위해임

불교방송 마치 폭력집단 처럼 매도 우려

불교방송직원단체 연수대회에서 한 간부가 신입사원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2일 남한강연수원 옥상으로 관리부장과 전략홍보부장직을 겸직한 간부가 신입사원 6명을 불러놓고 일방 원산폭력, 일처리를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을 내리고 있다. 직장내에 약간의 균기를 잡기 위한 행위와 기합은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시각과 폭행에만 중심을 두어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시각이다.

이번 사건의 1차적인 책임은 폭행의 가해자인 관리부장과 전략홍보부장직을 겸직한 구씨이다. 그가 술에 만취가 되었건 아니건 간에 신입사원에 대한 폭력은 용납되지 못할 것이다. 무슨이유건 사내폭력의 자행은 잘못된 일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관행처럼 유지된 사내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다음 2차적인 책임은 불교방송이다. 불교방송은 이러한 폭력행위를 미연에 막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반성이 있어야 한다. 불교방송은 2천만 불자들의 방송이며 불교의 방송포교로써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번 사건을 조용히 냉철히 사내에서 처리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폭력을 2차적으로 가공을 하여 마치 불교방송이 폭력집단인양 매도하는 보이지 않는 손을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다.

28일 불교방송 공문을 보면 폭행의 가해자인 관리부장과 전략홍보부장직위를 해임하고 3개월 정작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또한 불교방송 직원들은 23일부터 무기한 폭행사건 참회법회에 들어갔다. 불교방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거듭태어나야 한다. 또한 어떤 불순한 의도로 사건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된다. 제2의 폭력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5·18 21주기 합동 천도제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성호)는 지난 17일 광주 망월동에서 문민정사 주지 석강, 무각사 주지 광민, 법륜사 주지 월인, 천명사 주지 지명, 신평사 주지 경주스님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18 민주항쟁 21주기 합동천도제를 봉행했다.

이날 성호스님은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를 만들지 말아야 하며, 국가는 5.18피해자의 국가유공자 대우법률사 주지 월인, 천명사 주지 지명, 신평사 주지 경주스님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18 민주항쟁 21주기 합동천도제를 봉행했다.

1. 니르바나(열반)에 대하여

세계최초로 출시된 “불교포교 교육용 게임(니르바나)”는 불교의 기초교리와 상식 및 세계관을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서 익히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니르바나)를 통해 불교대중화와 어린이 및 청소년 포교에 기여하고자 제작되었다.

중국고전을 바탕으로 삼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등 우리에게 친숙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RPG 게임이다. 클릭과 함께 <니르바나>의 최종 목표인 ‘반야심경’을 구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모험의 세계로 인도될 것이다.

2. 니르바나 게임 스토리

천상세계에 중대한 사건이 발생되었다.

천상세계에 ‘반야심경’을 안치할 미륵전이 지어져야 하나, 요괴들의 수장인 이수라가 ‘반야심경’을 훔쳐가고 다른 괴물들은 절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나누어 가졌다.

삼장법사는 천상의 임무를 받아 미륵전 건축에 필요한 절 재료를 찾고 ‘반야심경’을 안치할 미륵전을 건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도의 길을 떠나는 삼장은 요괴들을 불법에 귀의시키기 위해 퀴즈와 각종 게임의 판문을 통과해야 한다. 삼장과 주인공들은 고승들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된다.

시스템 사양

1. CPU:Pentium 200MHz이상
2. RAM:32MB 이상
3. 운영체제 : Window95이상
4. 그래픽카드 : 16비트 컬러 이상의 그래픽카드
5. CD-ROM:4배속 이상의 CD-ROM
6. 사운드카드 : 운영체제에서 호환되는 모든 사운드카드
7. 조작장치 : 마우스, 키보드

· 제작업자상호 : (주)뉴엔터테인먼트 · 제작년월일 : 2001년 4월 · 등급분류번호 : 제2001-CR0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 4동 868-13 신정빌딩 2층 (우)137-838 TEL:534-9441 FAX:5952044

세계 최초
불교 포교 교육용 게임!!

니르바나와 함께하는
신나는 불교 여행~

이제부터 당신은
반야심경을 구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모험의 세계로 인도 될 것이다.

전체이용가

Buddhist
L.O.C.



사진으로 보는 그때 그시절...



총지종이 창종된지 어언 30년. 짧지 않았던 세월 속에 잊혀졌던 그때그시절을 떠올리며 추억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창종당시와 어려웠던 초창기 교화일선에 계셨던 스승님들의 모습을 사진을 통해 살펴봅니다. 지나간 추억 속에서 또다른 활기를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편집자주>



▲1978년 총본산을 현재의 강남구 역삼동으로 이전하면서 본산건립에 수많은 교도들이 동참하였다. 보시금을 회사한 교도들의 이름을 적어 길이 그 공덕을 기리기 위해 본산 경내에 '공덕탑'을 세웠다. 총본산 정원 동편에 세워져 있다. 탑신은 오석(烏石)으로 사방 크기가 2척이요, 높이가 8척이며, 지상에서 관석 원상까지 17척이나 되는 거대한 탑이다. 당시 역삼동은 전체가 밭이었으며, 사진에서처럼 주위에 큰 건물이 많지 않아 한가로워 보이게까지 한다. 지금은 본산 총지사가 주위의 고층빌딩에 가려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점들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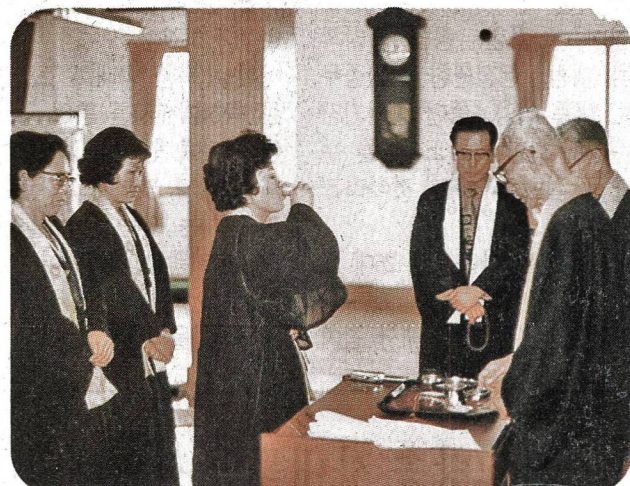
▲1973년 당시 동대문구 상봉동에 있었던 본산 '서울 선교부'를 성북구 중암동 23번지로 이전했다. 원정 대성사에서 창종스승님들과 함께 교화방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계신다. 등지고 계신 분이 원정 대성사님이고, 반대쪽에 계신 분이 당시 재무부장이었던 '환당' 대종사이다. 사진배경은 1973년과 1974년 당시의 선교부 내부이다. 이 집은 고려대학생들을 주로 하숙하던 '하숙집 방'이었다고 한다. 창종 초창기의 열악한 환경을 엿볼 수 있다.



▲1978년 8월 30일 부산 정각사 서원당에서 삼매야 계단을 개단하고 결연관정수계식을 봉행했다. 부산 경남지역에서 온 교도 110명에게 삼매야계를 수계하고 결연관정을 봉행했다. 수계 대상 교도는 교도회간부, 법장로, 전교 등이었다. 이날 관정불사에서 교도들은 수계증을 수여하고 입사선서문을 낭독했다. 관정수계식에서 계단 아사리는 전계아사리에 원정 대종사, 교수아사리에 특정 대종사께서 맡았다. 사진은 결연관정을 마친후 수계받은 교도들이 정각사 서원당에서 기념촬영한 것이다.



▲원정 대성사에서 헌공불사(獻供佛事)에서 훈향정공을 하고 계신다. 사진은 1977년 10월12일 정각사를 신축하여 전당(殿堂)을 비로자나부처님께 올리는 '헌공불사' 장면이다.



▲1975년 4월 춘기 강공회에 참석했던 모든 스승님들이 불정삼매야계(佛頂三昧耶戒)를 수여하고 전법관정을 봉행했다. 스승님들은 수계증을 수여하고 입사선서를 하였다. 사진은 수계받은 스승님이 서수(誓水)를 마시고 있는 장면이다. 전법관정의 아사리로 전계아사리에 원정 대성사, 교수아사리에 특정 대종사, 갈마아사리에 환당 대종사, 증계아사리에 복지화 전수가 맡았다. 사진 오른쪽 첫째가 환당 대종사, 두번째가 원정 대종사, 세 번째가 특정 대종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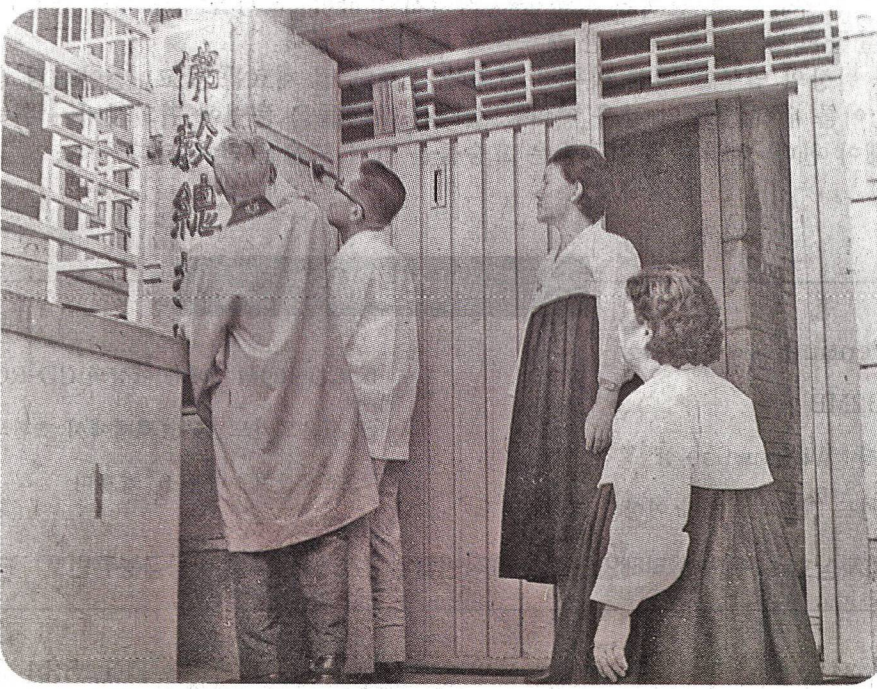


▲1978년 총본산 '총지사'를 건립하여 헌공불사를 올렸다. 헌공불사 후에 승단의 스승님들과 교도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앞줄 중앙이 종조 원정 대성사이고, 왼쪽이 현재 종령이신 특정 대종사이다. 당시 통리원장직을 맡고 있었다. 오른쪽이 복지화 지수이다. 당시 사감원장직을 맡고 있었다. 복지화 지수는 1992년에 열반하였다.



▲총기2년(1973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제2회 강공회가 대구선교부(지금의 개천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강공회에서는 '재단법인 불교총지원' 창립 총회가 열렸다. 사진은 강공회 개강불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다. 복지화 지수(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종단 유일의 출가승인 묘희심 전수(앞줄 오른쪽 첫 번째)의 모습이 보인다.

▲1972년 12월24일 오전 10시 서울선교부에서 개종불사(開宗佛事) 겸 창종식(創宗式)을 봉행했다. 선교부 정문에 종단현판을 내걸고 있다. 등지고 계신 분이 종조 원정 대성사이고, 옆이 특정 대종사, 그 뒤가 법장화 지수, 그 아래가 복지화 지수이다. 그 이후 본산을 성북선교부로 옮기고 1974년 6월 12일 재단현판식도 봉행하였다.



▲1974년 10월 3일 경주선교부에서 '경주학생회'를 결성하고 창립법회를 가졌다. 이날 법회에서 종조님으로부터 경주학생회 회기를 수여받았다. 그 이후 영남지역에서는 경주선교부(지금의 국광사)와 부산선교부(지금의 정각사), 경북 포항선교부(지금의 수인사) 등이 중심이 되어 활발한 학생회 활동을 펼쳤다. 매년 3개 사원지역을 돌아가며 학생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종교활동 등을 펼치기도 했다. 사진은 경주선교부에서 학생회창립법회 및 학생회기 수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한 것이다.